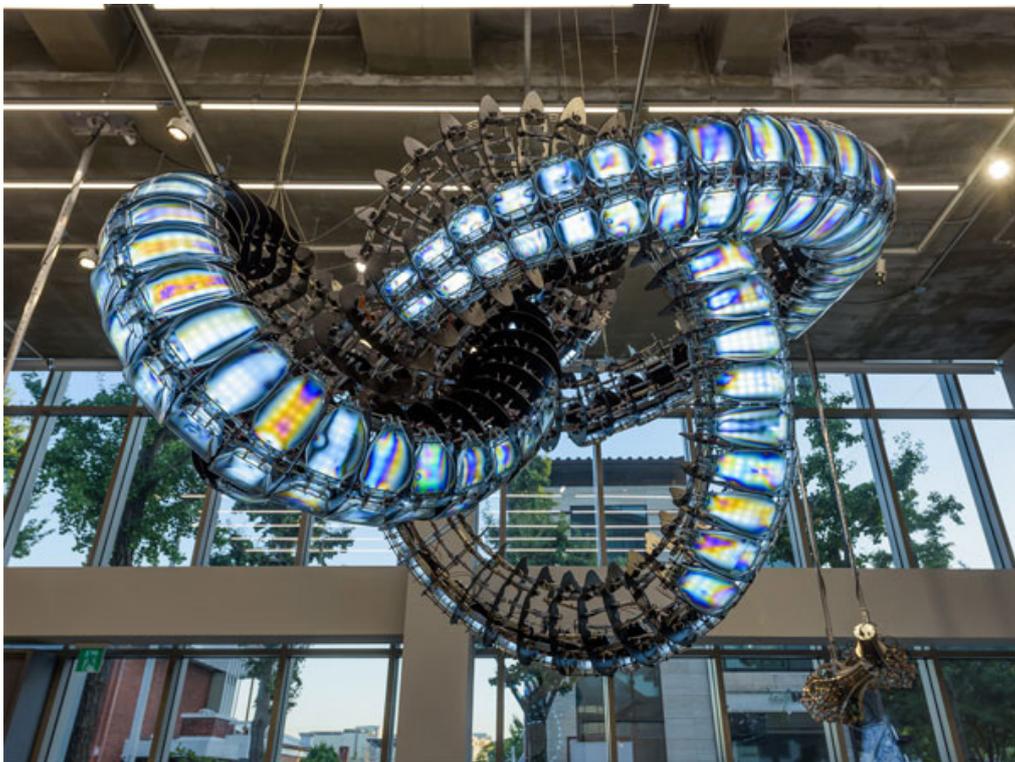


## 빛이 출렁거리는 고분자 조형물...SF영화 같네

설치미술가 김윤철 개인전

화학 공부해 새 물질 만들고  
복잡한 수학기산으로 드로잉  
`미술계 연금술사` 명성 얻어  
전지현 기자입력 : 2019.10.24



서울 삼청동 바라캇 컨템포러리 천장에 걸려 있는 김윤철의 설치 작품 `크로마`. 뫼비우스의 띠를 적용해 그리스 신화 속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 `오우로보로스`를 표현했다. [사진 제공 = 바라캇 컨템퍼러리]

서울 삼청동 바라캇 컨템포러리 전시장은 SF영화 한 장면 같다. 발광다이오드(LED)와 고분자(폴리머), 하이드로겔 등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한 작품이 오묘한 푸른 빛을 발산하고 있다.

우선 천정에 매달려 있는 `크로마(Chroma·채도)`는 뫼비우스의 띠를 적용해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 `오우로보로스`를 표현했다. 알루미늄이 휘는 각도와 압력을 수개월간 치밀하게 계산하고 실험한 결과물이다. 상하좌우로 키네틱 장치가 움직일 때마다 무지개 빛깔이 다채롭게 나타난다.

창가 천정에 설치된 `아르고스`는 그리스 신화 속 100개 눈이 달린 동명의 괴물에서 착안했다. 거대한 두 눈알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유리와 알루미늄, 마이크로 컨트롤러, 입자 검출기로 제작됐다. 82개 검출기가 공간을 통과하는 뮤온 입자를 검출하면 깜빡깜빡 빛이 난다. `아르고스`는 입자를 검출할 때마다 상들리에 작품 `임펄스(Impulse·극히 짧은 시간에 큰 진폭을 내는 전압이나 전류, 충격파)`로 신호를 보낸다. 펌프 27개와 나뭇가지처럼 늘어진 실린더 관들이 뿔어 있는 `임펄스`는 그 신호를 받아 투명한 액체 공기 방울과 파동을 보여준다.



김윤철 `임펄스`

개인전 `글레어(GLARE·눈부심)`에서 만난 설치미술가 김윤철(49)는 "전시 공간이 지하 같다는 데서 영감을 받아 뱀과 괴물 형태 작품을 제작했다. 실제 입자연구소도 불필요한 입자를 차단하기 위해 지하에 짓는다"고 말했다.

과학을 예술로 만든 그의 손은 흥터 투성이였다. 직접 금속 재료를 잘라 조립하고 광을 내기 때문이다. 그는 "내 뼈로 만든 수공예 작품"이라고 고충을 털어냈다.

기계 뿐만 아니라 화학도 독학으로 공부했다. 하이드로겔은 식물 추출물, 글리세린, 물, 알코올 등을 배합해 만든 수용성 고분자 액체다. 빛에 출렁이는 바닷물결 같은 작품 `콥틱 라이트(Coptic Light·이집트 교회 콥트 빛)`는 격자 구조에 하이드로겔을 여러 겹 쌓아올린 후 성인 다섯명이 달려들어 압착한 작품이다. 살아있는 액체여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채 스펙트럼이 펼쳐진다. 작가는 "마치 액션 페인팅 같지 않느냐"고 했다.

2m 높이 투명한 기둥 안에서 금속 또는 액체, 모래처럼 보이는 유체가 쉬지않고 출렁이는 작품 `트라이엑시얼 필라스(Triaxial Pillars·세 개의 축을 가진 기둥들) II`도 인상적이다. 이 금빛 유체는 기둥 내부 여러 장치들과 반응해 마치 불꽃처럼 위로 회오리치면서 상승했다가 천천히 하강한다.

연금술사처럼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작가가 물질의 본질을 탐구하게 된 계기는 떡이었다. 1998년 독일 쾰른 매체에 술대학에 유학 간 후 어머니가 종종 한국에서 보낸 떡은 상해 있었다.



설치미술가 김윤철

"내가 떡을 너무 좋아해서 어머니는 음식이 상할 것을 예상 못한 채 우체국에서 배송했다. 그 때부터 물질이 왜 부패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됐으니까 일종의 메시지였다. 같은 종류 나무와 풀이라도 한국과 독일에서 다르게 자라는것도 이상했다."

드라마와 영화 배경 음악을 작곡하는 전자음악가였던 그는 왜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기 위해 독일로 갔을까. "전자 음악 자체가 깊게 들어가면 수학과 관련이 많다. 전기 회로를 만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디어 아트와 연결되더라."

전시는 11월 17일까지.

[전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